

남원 흥부제 성황리 마쳐

가족관광 강화·행사장 확장 등 호평

남원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 제27회 흥부제가 공연, 먹거리, 가족관광을 강화하고 행사장을 확장하는 등 변화를 꾀한 결과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올 흥부제는 '흥부(興富)가 돌아왔다'는 테마로, 기념행사를 비롯해 공연 및 경연, 문화체험, 부대행사 등 4개 분야 30개 종목의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로 꾸며졌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흥부제만이 선



남원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 제27회 흥부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보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실재 없이 펼쳐져, 축제장의 흥을 돋웠으며, 유망가수가 출연한 개막 축하 공연을 비롯해 퓨전 마당극 흥부가 돌아왔다, 가족 아뜰레 지리배배 지리배배, 가면노래자랑 흥부가왕, 폼바 각설이 한마당 등 관객 참여형 공연이 펼쳐지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축제장내에 가족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공간을 연출한 점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에어바운스, 각종 인기체험코너를 배치해 어린이 대상 즐길거리를 대폭 확대, 100개의 파라솔과 테이블을 배치해 여유로운 축제 관람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흥부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흥부사랑 떠나는 행사와 흥부가족상 시상 등은 흥부정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현재 관광과장은 "올 흥부제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축제 구성과 운영에 주력해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28회 흥부제도 남원을 상징하는 축제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대표소스 '순창매운소스' 출시

유산균 발효소스 제품개발

소스 산업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순창군이 올해 '순창매운소스'를 개발해 출시했다. 이번에 개발된 '순창매운소스'는 순창군과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정도연 원장)이 공동개발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순창성가정식품이 생산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순창대표소스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순창매운소스'는 '오라차차 솟아나라 요리'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

발된 소스로, 고기나 야채에 곁들일 수 있게 만들어 어느 요리나 어울리도록 만든 만능소스다. 국산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유산균으로 발효하고 이를 이용한 독특한 매운맛이 주요 특징이다.

맵고 자극적인 맛이 외식업체와 소비자를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점차 차별화된 매운맛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걸맞고, 소스에 발효라는 건강함을 더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순창매운소스'는 매운맛과 달콤한 맛, 신맛이 서로 어울려 튀김요리나

볶음밥, 피자, 치킨 등 일상적인 요리는 물론, 기호에 따라 과자류를 찍어 먹어도 잘 어울린다는 것이 군 측의 설명이다.

이번 '순창매운소스'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순창소스세계박람회 박람회장 내 시식부스에서 시식행사 및 판매를 진행하여 관람객에게 첫 선을 보인다. 이 외에도 군은 장류를 이용한 소스 6종도 상품화하여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매운소스는 2년전 부터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소스로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소스가 주요 특징으로 향후 매운맛을 단계별로 조절해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올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 시작

남원시는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금년에도 공공비축미곡 전량을 톤백벼(800kg로 매입하고, 매입 기간은 산물벼는 11. 16일까지, 건조벼는 12월 중순까지이며, 매입 물량은 4,863.76톤(산물벼 820.52톤, 건조벼 4,036.16톤, 친환경벼 7.08톤)으로 전북

7만1,233톤 대비 6.8% 배정되었다.

배정기준은 2018년 논 타작물재배사업(30%),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실적(45%), 2018년 벼 재배면적(25%)으로 배정되었으며, 건조벼 물량 중은 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 인센티브 물량(835.24톤)은 농립축산식품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농가별 실적에 비례해 직접 배정할 계획이다.

매입대금은 우선지급을 하지 않고, 중간정산금(3만원/40kg포대)은 농가 수매 직후 지급하며, 최종정산금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확정 지급된다.

매입품종은 윤봉 등 산간부 윤광벼, 중·평야부 신동진 벼로, 품종 혼입을 막기 위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축제 식지않은 열기

축제 기간 43만여명 방문 이후에도 관광객 북적

올해 임실N치즈축제를 전후해 임실을 찾는 관광객 수가 50만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열린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만 역대 가장 많은 43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개막식이 열린 축제 첫날에는 당일 최대인 14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이어 4일에는 7만여명, 주말이틀간 22만여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축제 제2위원회는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9일 한글날과 이어지는 주말에 치즈테마파크 일대를 가득 메운 아름다운 국화꽃 경관을 보기 위한 인파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를 수놓은 아름다운 코스모스와 구절초까지 만개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을경관을 선사하면서, 임실을 찾는 관광객 발길이 줄어있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홍보와 국화꽃 조경 등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가운데 국화꽃이 질 무렵인 이달 말까지 50만여명의 관광객이 축제를 전후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무려 열흘간에 걸친 긴 연휴에 힘입어 축제를 전후해 45만여명이 찾았으며, 지난 해에도 국화꽃이 질 때까지 관광객이 이어지면서 35만여 명이 찾는 성과를 이뤄냈다.

/임실=진홍영 기자

많은 관광객의 방문은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됐다. 지난 축제에 연간 300~4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낸 데 이어 올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치즈 등 유가공 제품의 판매율이 급증하고, 한우와 먹거리 장터, 농특산물 판매장 등 매출이 전년 대비 30~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축제는 천만송이가 넘는 화려한 국화꽃 조경 등 볼거리 있는 축제장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최대 관광객이 운집하는 효과를 냈다.

여기에 글로벌존과 국제청소년 연합 공연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 국화꽃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다리, 야광경관 조명 등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아울러 세계음식 먹거리와 푸드트럭, 키즈존 확대 등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대폭 확대된 교통체계도 한 몫 했으며, 일시에 몰려드는 인파를 소화할 수 없는 진입도로 병목현상과 주차공간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달 말까지 임실 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 조경 및 시설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22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순창군보건의료원(원장 정영근)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은 15일,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진료소는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의료급여 1~2급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그 외 예방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유료(접종비 7600원)로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만 65세이상 순창군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

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폐렴, 심부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전 10월~12월 사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만 9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은 매년 1회 접종,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소아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을 권장하므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아이 상태에 따라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63-650-5243, 526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제3회 시민사랑방 개최

남원시는 15일 시청 강당에서 제3회 시민사랑방을 개최하고 '다문화가족과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과 함께하는 정책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의 '시민사랑방'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6일 '청년일자리와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회를, 지난 4월 19일에는 '함께하는 교육1번지 남원'이라는 주제로 제2회를 추진하며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펼쳤다.

본 행사는 이주여성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화주 시장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의 정책설명과 이주여성의 깜짝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는 등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다문화가족들은 민원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번역사 배치, 교환나들이 조건 완화, 공공서비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화주 시장은 "단 시간에 모든 정책이 변화될 수는 없지만 제안된 내용들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삼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임실군 삼계초등학교(교장 유혜영)에서는 개교 100주년 기념식 및 동문 한마당 축제가 최근 삼계초등학교 교정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우 부군수를 비롯하여 신대용 군의회위원장, 이용호 국회의원, 한원수 도의회부위원장, 정나영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동문 700여명이 참석해 10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삼상만 총동문회 부회장 등 4명에게는 공로패를, 조선대학교 이공대학 학장을 지낸 30회 이정근 동문 등 6명에게는 자랑스런 삼계인 상을 수여했다.

삼계초등학교는 1919년 10월 10일 삼계사립보통학교로 개교한 후 550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김학수 총동문회장은 기념사에서 "삼계초등학교 뜻 깊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나온 10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기 위한 터전 마련을 위해 5500여 동문들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유혜영 교장은 축사에서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사랑을 발판으로 더 높이 도약하여 100년을 넘어 빛나는 100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삼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개교100주년을 맞아 기념비 제작, 모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